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정책적 함의

민 정 훈

북미유럽연구부 교수

미중 정상회담이 2026년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양국 정상 만남은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정상회담 후 4개월여 만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세 번째 만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항에 직접 나와 시진핑 주석을 영접하고 백악관에서 국빈을 위한 공식 환영식을 성대하게 개최하는 등 극진한 예우를 선보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 양국은 정상 간 유대를 증진하고 '무역 휴전'을 두 달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한편, 기술 통제, 희토류 수출 통제, 대만 문제, 인공지능(AI) 규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결과가 반복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미중 관계가 양국 지도자 간 신뢰와 유대를 토대로 양국 관계 관리 기초를 유지하되, 양국 간 경쟁이 집중되는 경제·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견제'와 '협력'의 양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임을 보여준다.

1.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1) 미중 관계 전반

지난 5월 중순 베이징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이번 워싱턴 정상회담도 양국 간 관계를 관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백악관은 팩트 시트(설명자료)를 통해 미중 양국이 존중, 공정,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측도 양국 정상이 상호 존중과 공정, 대등을 토대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공정'은 제로섬 게임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절대 우위를 추구하지 않음을, '대등'은 패도와

괴롭힘을 하지 않고 협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가 양국이 올바른 공존하는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며, 양국이 이러한 비전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중 관계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미중 경쟁이 한쪽의 승리와 다른 쪽의 패배로 끝나는 ‘제로섬 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중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양국 역사상 전례 없이 두 정상이 반년도 안 되는 시간에 상호 방문을 실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미중 관계라는 큰 배의 항로를 이끌어 가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을 “위대한 방문”이라고 평가하고, 두 지도자의 리더십 하에 양국 관계는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는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틀로 제시한 것이며, 당시 두 정상은 상호 존중을 토대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형성에 공감을 표명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 양국이 다시금 전략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건설적인 관계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힌 것은 향후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 하겠다.

(2) 경제·통상 분야

경제·통상 부문은 이번 워싱턴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 양국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분야이다. 양국은 ‘무역 휴전’을 내년 1월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설된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가동을 시작하였다.

백악관은 팩트 시트를 통해 양국이 무역위원회를 통해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대해 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권고안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對中) 수출은 농산물, 어류·수산물, 목재,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은 소형 가전, 완구, 카시트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장벽이 완화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중국이 2027년과 2028년 각각 1천만 톤 규모의 미국산 석탄을 수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측도 무역 휴전의 연장과 무역위원회를 통한 3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한 대등한 관세 인하 조치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미 측의 발표와 달리 관세 인하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품목과 미국산 석탄 수입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며 미국과 입장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미중 양국은 기술 통제, 희토류 수출 통제, 인공지능(AI) 규제 등 핵심 의제 논의에 있어서는 진전을 거두지 못하였다. 백악관은 팩트 시트를 통해 미중 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부족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적절한 수준의 공급량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측 발표에는 희토류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기술 통제 문제는 양측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술 통제와 관련하여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첨단 반도체가 미국 기술의 귀중한 자산이자 AI 경쟁에서 미국이 앞서 나갈 수 있게 하는 수단이라고 밝히며 최첨단 반도체의 수출 통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미래 경쟁력 핵심 분야인 AI에 있어 양국은 '슈퍼 지능(Super Intelligence)'이라는 용어 사용에 합의하고 상황 관리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AI 기술의 개발 규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AI 기술 개발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반면 시진핑 주석은 AI 개발이 인간의 통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서로를 견제하기보다는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술·희토류 통제, AI 규제 등 핵심 의제 관련 논의를 하지 않거나 진전을 거두지 못한 것은 미국과 중국 모두 양국 간 전략 경쟁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 및 양보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 준다. 이러한 핵심 의제는 오는 11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다시금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의제에 관한 양국 간 경쟁 구도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대만 문제와 글로벌 정세

이번 워싱턴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미 측에 전달하며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임을 재확인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미국을 향해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대만 문제를 논의했으며,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어떠한 입장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대만 문제는 양측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대만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데이비드 퍼듀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통해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 관련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따라서 이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충돌하거나 심지어 분쟁으로 이어져 양국 관계가 위협해질 수 있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시진핑 주석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중국이 얻은 주요 성과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5월 베이징에 이어 미국 워싱턴에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대만 독립 반대 입장 표명을 촉구한 것은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임을 전 세계에 다시금 각인시키는 동시에 강인한 지도자로서의 시진핑 주석의 면모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대미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더불어 중국이 얻어 가는 주요 정치적 성과라 하겠다. 다음 달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통해 4연임을 위한 장악력 강화를 꾀하는 시진핑 주석이 국내적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의 4연임 여부가 내년 가을 개최되는 제21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입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글로벌 정세와 관련하여 미중 정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및 한반도(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이란 전쟁과 관련하여 양측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반대한다는 데 두 정상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양국이 지난 6월에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로 복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양측은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 정책적 함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정상은 부산, 베이징, 워싱턴에서 만났으며, 올 11월과 12월에 중국 선전과 미국 플로리다에서 다시 조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화려한 의전과 성대한 이벤트를 통해 정상 간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양국 관계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하였다.

향후 양국은 정상 간 신뢰와 유대를 토대로 ‘서틀 외교’를 정착시키고, 관계 관리 기조화 정치적 이익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중간선거 및 이를 위한 미국 내 경제 상황 관리와 중국 시진핑 주석의 4연임을 위한 대내적 영향력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양국 모두 전면적인 충돌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대내적 실리, 즉 미국은 농산물, 에너지 등 중국 시장 추가 개방과 미국으로 유통되는 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중국 내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정치적 성과를 부각시키고, 중국은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와 대만 문제 부각을 통해 보다 대등해진 양국 관계를 강조하며 대내적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통상 분야와 관련하여 미중 양국 간 ‘견제’와 ‘협력’의 경계가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워싱턴 정상회담에서도 최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 통제, AI 규제 등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첨단기술 및 전략산업 분야를 둘러싼 미중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초격차 기술의 수출 통제 및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등을 둘러싼 양국 간 견제 기조는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노력과 맞물려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산물, 에너지, 소비재 등 민감하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가 인하되고 양국 간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조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작년 말에 발간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동 행정부는 중국의 경제 개방 이후 미중 양국 간 상업적 불균형 관계가 지속되었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경제적 활력을 위한 토대를 쌓기 위해 호혜성(reciprocity)과 공정성(fairness)을 토대로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감하지 않은 품목들을 중심으로 대중(對中) 교역을 증대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적 시도는 미국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을 통해 창설되고 이번 워싱턴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동을 시작한 무역위원회를 통해 민감하지 않은 품목 교역을 위한 제반 사항 및 절차 등이 구체화되고, 이를 토대로 양국 간 교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통상 분야 관련 미중 간 복합적 관계를 활용하여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첨단기술 및 전략산업 분야 관련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기조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기술 경쟁을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과의 기술 협력 증대 및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 우리의 경쟁력 및 경제적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농산물, 에너지, 소비재 등 민감하지 않은 품목 관련 미중 간 교역 증대는 양국과의 교역에 집중된 우리 경제에 이익 증대를 위한 공간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무역위원회의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양국 간 교역 물품 목록을 파악하고 우리의 대미·대중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백악관은 팩트 시트를 통해 두 정상에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논의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과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히며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이번 유엔총회 계기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북미 정상외교 재개를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

현재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재확인하며, 북미 정상외교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시동을 걸었다. 이후 북한과의

소통을 위한 미 측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의 창을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와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후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4연임을 앞두고 대내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APEC 정상회의와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리더십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상황은 그리 달갑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정은 위원장과 평양에서 조우하는 것이 북미 정상회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세 번의 만남을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 가진 바 있다. 따라서 북한 이외의 장소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의미를 지닐 것이나,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면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북한 방문이 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역사적 행보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평양 공항에서 조우하고 평양 시내를 함께 활보하는 모습은 미국의 최고 지도자와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상국가 지도자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아시아 순방 시 북미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갖는 효과를 강조하며 ‘세기의 만남’이 될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견인해야 한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 제재 완화 및 해제, 관계 개선 조치 등의 유인을 확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남·북·미·중’ 협상 프레임을 통해 중국의 참여를 견인하여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가능성을 높이고 북미 협상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이번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반대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회담 결과는 이란 전쟁 관련하여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논의한 내용 및 중국의 행보와 유사점이 많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지난 5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의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이란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당시 백악관은 정상회담 보도 자료를 통해

미중 정상이 에너지의 자유로운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러시아, 파키스탄과 정상회담을 하며 활발한 외교 행보를 보였다. 지난 6월 중순 미국과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중재 역할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미국과 이란은 머지않아 협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란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였고, 미국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7일 계획’ 평화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조만간 이란과 추가 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으나, 양측 모두 확전 대신 전쟁의 출구 모색을 원한다는 점에서 협상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양측의 움직임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해제와 이란의 핵 보유 저지를 둘러싼 양측의 지난한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 이 윤 서 연구원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서초2동 1376-2) 우)06750

www.knda.go.kr / www.ifans.go.kr

E-mail: research@mofa.go.kr

